



남원노인복지관, 식품안전관리 ‘우수’

남원시보건소가 주관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 급식소’ 평가에서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받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 30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노인복지관은 급식시설 청결도, 위생관리 체계 운영, 식중독 예방활동, 안전한 급식 제공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3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하루 평균 약 270여 명의 어르신 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노인맞춤형 급식처로 △정기 위생 점검 강화 △상시 위생·안전교육 시행 △식자재 관리 체계화 △급식시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식중독·위생·안전사고 ‘제로(Zero)’를 유지하며 모범적 운영 성과를 보여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북전주농협, 제25회 ‘한옥애들 배’ 홍보행사 개최

북전주농협은 20일 전주시와 함께 하나마트 수월·성남점과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제25회 한옥애들 배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전주농협 관내에서 정성껏 재배한 신선한 배를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한옥애들 배 시식, 특가 판매, 산지 직송 품질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주 원동 배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북전주농협 주산지인 전주 원동 배는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 덕분에 당도와 과육의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행사에서도 수도권 소비자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남원 운봉읍,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교육·해단식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교육과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전동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신호와 속도 제한 준수 △야간 전조등 사용 및 주행 전 장비 점검 △보행자와의 충돌 주의 △인인 탑승 원칙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동김제농협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는 지난 19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과 함께 김제 시 금구면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김제시지부와 전북양곡자재단 및 동김제농협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고추대 제거와 비닐하우스 폐자재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는 등 농촌 환경정화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농협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영농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활동 역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진오 조합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유현 지부장도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수의원상·모범의정상 동시 수상

민주 이원택 의원, 국정감사서 농정 전반 대한 질의·현실적인 대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쿠팡이슈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과 도전한국인본부의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쿠팡이슈는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내용, 정책 대안 제시 능력, 민생현안 대응력 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30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농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전한국인본부는 한국인의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각 분야의 공헌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공공 분야 의 긍정적 변화 유도 노력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TRQ 확대 등 무분별한 수입농정의 문제점을 지적



이원택의원

하며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루쌀·논공 등 전략작물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농 3만 명 육성정책 부작용, 농업 R&D 예산 삭감 문제,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등 핵심 농정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해양수산 분야 역시 내항선사 금융지원 부족, LNG 수입선 해의 의존 심화, 고수온 피해 등 현안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균형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촌기반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전북 이전 추진, 농촌진흥청 전북이전 촉구, 농협캐피탈 익산 이전, 신동진씨 보급종 중단 철회 확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신속 조성 등 전북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 농정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수상은 농정개혁의 속도를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제명 정부와 함께 농업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금호로지스, 연탄나눔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 임직원들이 20일 군산시 조촌동에서 취약가구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주)금호로지스는 총 47가구에 연탄 2000장을 지원했으며, 이 중 27가구는 임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지태 (주)금호로지스 대표는 “이번 연탄나눔 봉사가 어려



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주)금호로지스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촌동 또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호로지스는 매년 연탄봉사, 이웃돕기 성금기탁, 헌혈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읍시, 노인 맞춤형돌봄 내실화 포럼 성료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읍 성곡회행복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현주)는 지난 18일 ‘제2회 내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내실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어르신들이 낯선 시설이 아닌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돌봄 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유진 교수의 주제 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과학대학교 송운운 교수가 좌



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도형 시의원, 심재권 노인장애인권 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박현주 센터장 박경숙 정읍아산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팀장, 성백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발표를 이어

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방문 서비스 제공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추수감사절 맞아 나눔 실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직원·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직장선교회가 마련한 떡과 교목살이 준비한 과일 등으로 220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직장선교회는 지난 17일 교직원과 학생 약 1,400명을 위해 떡을, 이어 교목살은 미얀마·몽골·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 800여 명에게 과일을 전달했다.

우병훈 총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시 인후2동 주민자치위, 이불세탁 봉사활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선)는 20일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 10가구를 위한 겨울맞이 이불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불세탁 봉사활동은 위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세탁할 이불을 수거, 세탁 후 대상 가정으로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에도 관내 홀로 어르신 10가구(가구당 이불 2채씩)의 이불 세탁 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용선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택 내에서 부피가 큰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소연 인후2동장은 “바쁜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임실읍, 시가지 낙엽 제거에 구슬땀 흘려

임실읍이 임실군의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비하여 지난 13일과 18일에 시가지 중점구간에 대해 선제적으로 낙엽을 제거했다.

초겨울의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하여 가로수의 낙엽이 도로 및 인도 변에 쌓이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임실읍은 시가지 중점구간을 중심으로 낙엽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보행 안전 확보, 미끄럼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북지기동대, 금구면 독거노인세대 지붕 수리 봉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북지기동대(대장 이미향)가 20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노후 지붕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풍수해와 장기간 노후로 인해 지붕 파손이 심각해 비가 새고 구조적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태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눈 쌓임 등에 의해 언제 지붕이 무너져 내릴지 몰라 어르신들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북지기동대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10여 명이 참여해 파손된 지붕 철거, 방수 시트 보강 기와 교체 등 세밀한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어르신 태의 지붕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지원받은 독거 어르신은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놓고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승곤 변장은 “추운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